

2019년 2월 7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5일 연속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

연휴 기간 다우+1.30%, 나스닥 +1.53%, S&P500 +0.93%

### 미 증시 실적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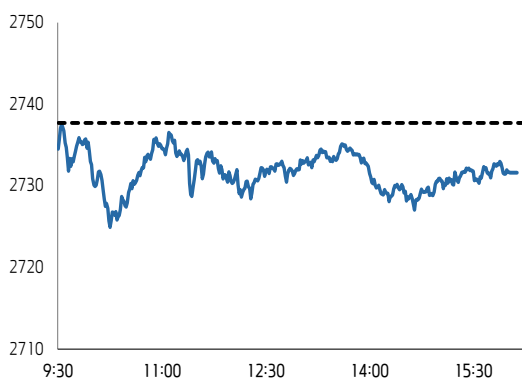
미 증시는 5일 연속 상승한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특히 알파벳(-2.52%)이 실적 발표 이후 FANG 기업들과 하락 주도. 다만, 마이크로칩(+7.29%) CEO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 낙관적으로 제시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9% 상승한 점은 특징. 한편,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무역협상이 잘 진행중” 이라고 언급한 점도 낙폭 제한 요인(다우 -0.08%, 나스닥 -0.36%, S&P500 -0.22%, 러셀 2000 -0.14%)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4분기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추정. 이는 지난 1월 25일에 비해 1.5%p 상향 조정된 수치. 특히 에너지 업종(+23.3%p), 커뮤니케이션 섹터(+1.8%p), 헬스케어(+1.3%p) 등이 이를 주도.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1월 25일 대비 0.5%p 상향 조정. 이에 힘입어 커뮤니케이션섹터, 에너지 종목들이 최근 1주일간 7~12% 상승하며 미 증시 상승을 주도

그러나 2019년 1분기 S&P500 영업이익은 지난 2016년 1분기(yoy -5.5%) 이후 처음으로 감익될 것으로 전망(yoy -0.8%). 특히 IT(yoy -8.9%), 에너지(yoy -5.9%), 소재(yoy -5.1%) 등이 주도. IT의 경우는 매출액도 전년 대비 0.4%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짐.

한편, 2월 6일 미 증시는 알파벳의 부진한 실적 발표를 빌미로 FANG 기업들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 반면 마이크로칩은 무역분쟁 등 정책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 라고 주장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9% 상승. 대체로 시장은 실적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03.46	휴장	홍콩恒生	27,990.21	휴장
KOSDAQ	716.92	휴장	영국	7,173.09	-0.06
DOW	25,390.30	-0.08	독일	11,324.72	-0.38
NASDAQ	7,375.28	-0.36	프랑스	5,079.05	-0.08
S&P 500	2,731.61	-0.22	스페인	9,100.90	+0.10
상하이종합	2,618.23	휴장	그리스	654.39	+0.26
일본	20,874.06	+0.14	이탈리아	19,996.47	+0.8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업종 급등

알파벳(-2.52%)은 실적 발표 이후 하락 했다. 비용 증가 우려감이 높아진 여파로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이 부담이었다. 이를 빌미로 아마존(-1.12%), 페이스북(-0.39%), 넷플릭스(-1.02%) 등 FANG 기업들도 동반 하락 했다. 게임업종인 EA(-13.31%)은 부진한 실적과 향후 전망을 발표하자 급락 했다. 이 여파로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13.76%), 블리자드(-10.12%) 등도 동반 급락 했다.

반면, 스냅챗(+22.02%)은 양호한 실적 발표로 급등 했다. 마이크로칩(+7.29%)은 양호한 실적과 더불어 CEO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 라고 주장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마이크론(+5.46%), 텍사스인스트루먼트(+4.07%), AMAT(+2.97%)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스카이웍(+11.49%)은 양호한 실적과 2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자 급등 했다. 큐로브(+3.92%), 브로드컴(+2.30%) 등 애플 부품주도 동반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21%	대형 가치주 ETF(IVE)	+0.03%
에너지섹터 ETF(OIH)	-0.06%	중형 가치주 ETF(IWS)	-0.14%
소매업체 ETF(XRT)	-0.65%	소형 가치주 ETF(IWN)	-0.23%
금융섹터 ETF(XLF)	-0.08%	대형 성장주 ETF(VUG)	-0.34%
기술섹터 ETF(XLK)	+0.34%	중형 성장주 ETF(IWP)	-0.0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04%	소형 성장주 ETF(IWO)	-0.11%
인터넷업체 ETF(FDN)	-0.22%	배당주 ETF(DVY)	-0.25%
리츠업체 ETF(XLRE)	-0.81%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0%
주택건설업체 ETF(XHB)	-1.0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00%
바이오섹터 ETF(IBB)	-0.16%	미국 국채 ETF(IEF)	+0.08%
헬스케어 ETF(XLV)	+0.45%	하이일드 ETF(JNK)	+0.03%
곡물 ETF(DBA)	+0.18%	물가연동채 ETF(TIP)	-0.06%
반도체 ETF(SMH)	+2.41%	Long/short ETF(BTAL)	-0.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7.37	-0.76%	+2.11%	+5.41%
소재	335.12	-0.68%	-1.20%	+2.90%
산업재	618.04	-0.02%	+2.83%	+10.30%
경기소비재	855.28	-0.51%	+0.37%	+3.46%
필수소비재	550.05	+0.06%	+2.21%	+3.67%
헬스케어	1,049.57	+0.36%	+1.30%	+4.09%
금융	431.92	-0.27%	+0.20%	+7.05%
IT	1,202.35	+0.24%	+3.25%	+9.47%
커뮤니케이션	152.77	-1.49%	+3.75%	+3.57%
유틸리티	277.47	-0.10%	+2.00%	+2.98%
부동산	212.59	-0.76%	+0.76%	+8.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반도체 관련주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2% MSCI 신흥 지수 ETF 도 1.31% 하락했다. 연휴 기간 MSCI 한국 지수는 0.94%, MSCI 신흥 주시는 0.21%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휴장인 가운데 지난 2 월 1 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1,544 계약)에 힘입어 0.55pt 상승한 286.8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0.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기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며 11 일부터 있을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2 차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업황 바닥을 언급한 마이크로칩 CEO 의 발언으로 급등한 점은 투자심리 개선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한국시각 오전 9 시 진행되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도 지난 FOMC 와 같은 경기자신감과 금리인상 지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분쟁과 관련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며 여전히 지적재산권 관련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또한 브렉시트 관련 용커 의장이 영국과의 재협상이 없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나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수출입 증가율 감소

11 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시장 예상치(-543 억 달러) 보다 감소한 493 억 달러 적자로 발표되었다. 수출은 0.6% 감소했으며, 수입도 2.9% 감소 했다. 특히 수입 감소폭이 컸다는 점에서 관세 발표에 따른 영향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1 월 미국의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8.0)이나 예상치(57.1) 보다 둔화된 56.7 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 전환 성공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치(+140만 배럴)보다 소폭 적은 126만 배럴 증가에 그친 점, 가솔린 재고가 시장 예상치(+120만 배럴)을 하회한 50만 배럴 증가에 그친 데 힘입어 상승했다. 다만, 달러 강세가 이어져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무역적자폭 축소 영향을 받아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영국 EU 의장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재협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언급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무역적자폭 감소와 10년물 국채입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경기 둔화 및 브렉시트 이슈 부각 여파로 보합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한편, 미국 10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개월 평균(2.50배)보다 둔화된 2.35배에 그쳤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으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혼조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은 휴장이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4.01	+0.65	-0.41	Dollar Index	96.380	+0.33	+1.09
브렌트유	62.69	+1.15	+1.87	EUR/USD	1.1365	-0.36	-1.00
금	1,314.40	-0.36	-0.08	USD/JPY	109.97	+0.01	+0.85
은	15.701	-0.85	-1.42	GBP/USD	1.2936	-0.07	-1.37
알루미늄	1,907.00	-0.78	-0.13	USD/CHF	1.0022	+0.24	+0.80
전기동	6,279.00	+0.74	+2.33	AUD/USD	0.7119	-1.59	-1.78
아연	2,704.00	-1.35	+0.67	USD/CAD	1.3206	+0.61	+0.43
옥수수	380.00	-0.20	-0.33	USD/BRL	3.7011	+0.94	+0.56
밀	526.00	-0.24	+1.79	USD/CNH	6.7779	+0.22	+0.98
대두	921.75	+0.16	+0.08	USD/KRW	1118.80	+0.55	-0.22
커피	105.50	+0.62	+3.33	USD/KRW NDF1M	1120.85	+0.39	+0.9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700	+0.17	+2.25	스페인	1.255	+0.20	+0.30
한국	1.983	-1.40	-1.90	포르투갈	1.659	-0.10	-0.40
일본	-0.013	-0.40	-1.80	그리스	3.885	+0.10	-2.10
독일	0.162	-0.80	-2.60	이탈리아	2.857	+6.50	+26.00